

조사보고서

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계기업 인식조사

2014. 1



목 차

I. 조사 개요	1
II. 조사 결과	2
1. 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평가	2
2. 외국인투자전망 및 현황	3
3. 기업관련 입법에 대한 의견	4
4. 정책과제	6
III. 시사점	7

I. 조사 개요

- 조사대상 : 국내 외국계기업 201개사
- 조사시기 : 2013년 12월 20일(금) ~ 12월 30일(월)
- 조사방법 :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화 조사
- 조사대상 특성(응답기업 기준)

기업구분	빈도수	백분비
전체	201	100.0%
대기업	9	4.5%
중소기업	192	95.5%

II. 조사 결과

1. 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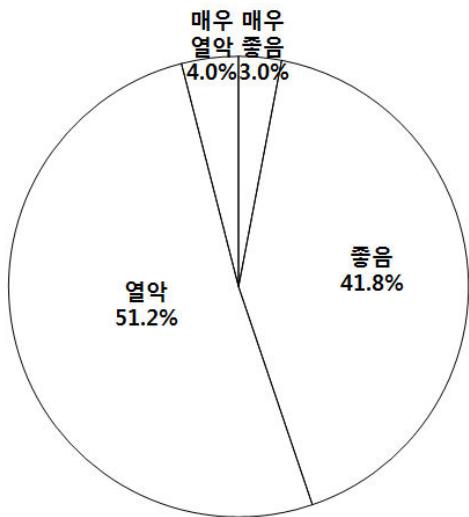
- 한국 투자환경에 대해 외국계기업의 55.2%는 '열악하다', 44.8%는 '좋다'고 평가

- '매우 좋음'(3.0%), '좋음'(41.8%), '열악'(51.2%), '매우 열악'(4.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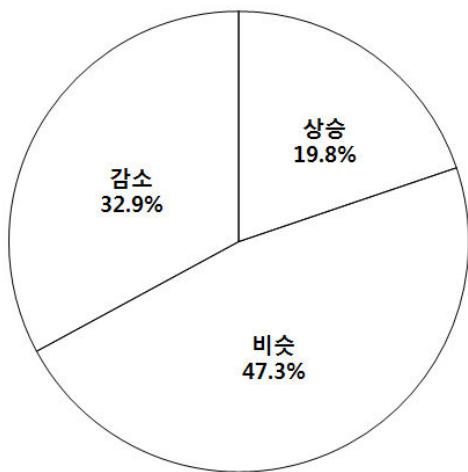
- 최근 3년간의 투자매력도 변화에 대해서는 '비슷하다'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, '매력도 저하'라는 응답이 '매력도 상승'이라는 응답보다 우세

- '비슷'(47.3%), '매력도 저하'(32.9%), '매력도 상승'(19.8%)

<그림1>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평가



<그림2>최근 3년간 투자매력도 변화



- 한국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정책 일관성 부족과 경제변수의 변동성, 과도한 규제수준 등을 지적

- '정책일관성 부족'(32.5%), '경제변수 변동성'(27.0%), '규제수준 과도'(23.4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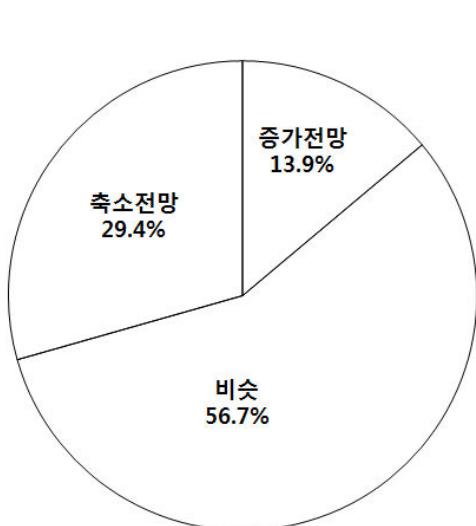
- '노사갈등과 반기업정서'(10.8%), '교육 등 사회인프라 부족'(6.3%)

- 한국 투자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'산업경쟁력', '우수한 인력', '중국시장 진출 거점' 등을 들었음
 - '산업경쟁력'(43.3%), '우수한 인력'(32.2%), '중국시장 진출의 거점'(11.1%)
 - '광범위한 FTA 영토'(6.7%), '생산기지로서 장점'(6.7%)
- 한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외국인투자 유입수준이 낮은 이유로는 중국 등 다른 투자우선국가가 있고, 기업환경이 열악한 점 지적
 - '중국 등 다른 투자우선국가가 있기 때문'(41.8%), '노동, 세제 등 기업환경 열악'(34.8%), '투자인센티브가 약하기 때문'(17.4%), '미국, EU 등 대규모 투자국가로부터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'(5.0%) 順 <기타 1.0%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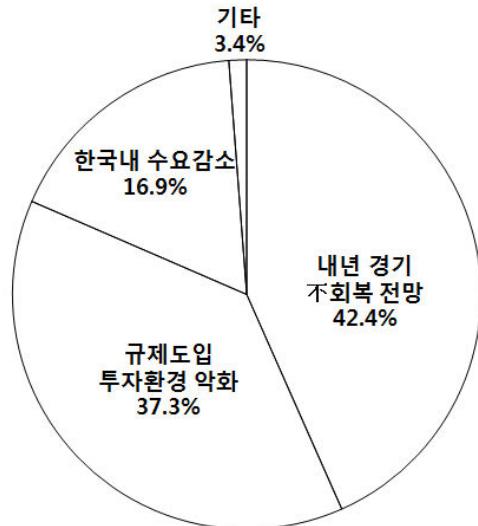
2. 외국인투자전망 및 현황

- 작년 대비 올해 외국인투자규모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많은 가운데 축소전망이 증가전망보다 우세
 - '작년과 비슷한 수준'(56.7%), '축소 전망'(29.4%), '증가 전망'(13.9%)
- 증가 전망의 이유는 규제와 투자환경 개선, 내년 경기회복 전망 順
 - '규제와 투자환경 개선'(57.1%), '내년 경기회복 전망'(28.6%), '한국내 수요 증가'(10.7%) <기타 3.6%>
- 축소 전망의 이유는 경기회복 불확실 전망, 투자환경 악화 順
 - '경기회복 불확실'(42.4%), '규제도입·투자환경 악화'(37.3%), '한국내 수요 감소'(16.9%) <기타 3.4%>

<그림3> 올해 외국인투자규모 전망



<그림4> 축소전망의 이유



- 축소 전망기업 중 투자대체국으로 고려중인 나라가 있는 기업은 20.3%(12개사)

- '중국'(8개사), '베트남'(2개사), '독일'(1개사), '신흥국 또는 동유럽'(1개사)

-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한국투자시 가장 선호하는 투자형태는 합작투자

- '합작투자'(50.7%), 'M&A'(28.9%), '단독투자'(20.4%) 順

3. 최근 기업관련 입법에 대한 의견

- 기업관련 입법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 전망

- '부정적 영향'(53.3%), '별 영향 없을 것'(32.3%), '긍정적 영향'(14.4%)

- 특히 기업관련 입법이 지속될 경우 응답기업 절반이 한국에 대한 투자축소를 고려 할 수도 있다고 응답

- '투자축소 고려가능'(49.8%), '투자철회 고려가능'(20%)

- '변화 없음'(44.3%), '경제회복 등 상황에 따라 투자를 늘릴 가능성'(20%)

○ 최근 기업관련 입법 중 가장 부담되는 입법으로는 '통상임금 등 노동입법'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음

- '통상임금,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입법'(35.4%), '법인세 증세 등 조세입법'(28.9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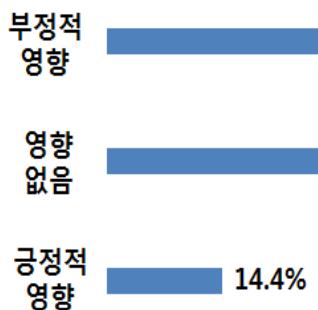
- '출점규제, 영업시간 규제 등 유통관련 규제'(11.9%)

- '화평법·화관법 등 환경관련 규제(10.4%), '공정거래 하도급 관련 규제(10.4%) <기타 : 3.0%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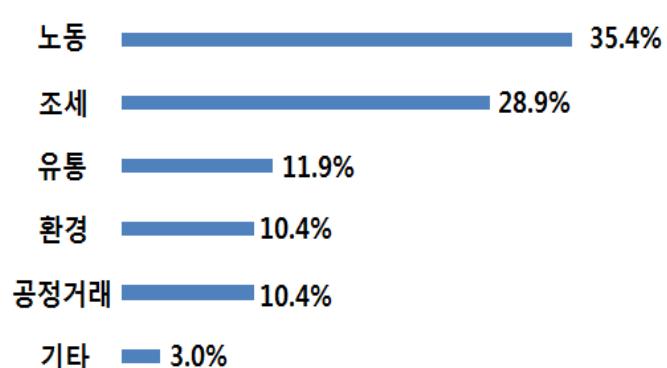
○ 기업관련 입법의 문제점으로는 피규제자인 기업과의 소통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

- '기업과의 소통 불충분'(39.3%), '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부족'(38.8%), '기업이 수용하기 어려울 만큼 한꺼번에 과도한 규제 도입'(19.9%) <기타 : 2.0%>

<그림5> 기업관련 입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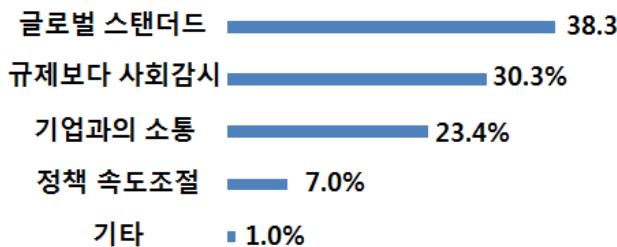
<그림6> 가장 부담되는 기업관련 입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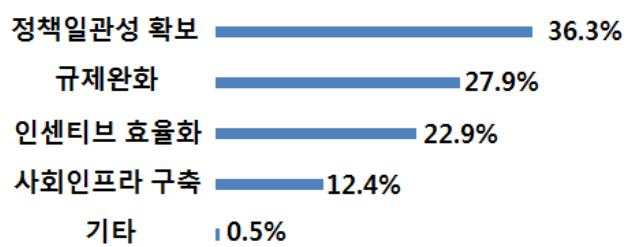
4. 정책과제

- 기업관련 입법이 투자환경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과제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 추진과 규제입법에 앞서 사회 감시인프라를 구축해줄 것을 주문
 - '글로벌 스탠다드 정책 추진'(38.3%), '규제입법보다 사회 감시인프라 구축'(30.3%)
 - '기업과 충분한 소통'(23.4%), '정책추진의 속도조절'(7.0%) <기타 : 1.0%>
- 외국인투자유치 증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정책일관성 확보와 규제 완화 등이 꼽힘
 - '정책일관성 확보'(36.3%), '규제완화'(27.9%), '인센티브 효율화'(22.9%), '주거·교육 환경 등 사회인프라 구축'(12.4%) 順 <기타 : 0.5%>

<표7> 기업관련 입법이 투자환경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과제



<표8>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과제



III. 시사점

-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는 최근 3년간 증가추세였으나 작년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며, 경제규모(세계 15위)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액(세계31위)이 적은 실정
 - *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입액(신고기준, 억불) : → 114.8('09) → 130.7('10) → 136.7('11) → 162.6('12) → 135.0('13 전망치) / 107.5('13.3/4, 전년 동기대비 4% ↓)
-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들이 느끼는 우리나라의 투자매력도가 그리 높지 않으며 최근의 투자매력도 변화 역시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
-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기업관련 입법이 추진되면서 외국인투자에는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됨
- 특히 규제와 기업관련 입법 자체도 문제지만 정책이 수시로 바뀌며 일관성이 부족한 점이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한 요인이 되고 있음
 -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고용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상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던 규정에 배치
 - 개정된 화평법은 화학물질 등록에 관한 정부와 산업계의 2년간의 논의가 국회에서 갑자기 뒤집힌 결과
- 외국인투자증대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인 만큼 최근의 외국인투자 감소는 성장동력 저하의 시그널 → 각종 규제와 기업경영여건을 개선할 필요
- 최근 정부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제활성화에 정책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향후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꾸준히 추진되어야 하겠음